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열린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00여 명의 한민족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학술이론과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강원, 전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국내·외 한민족 과학자 600여명 참석

19일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창립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막되는 이번 대회는 ▶Plenary Session ▶General Session ▶S&T Poster Session ▶KCIST 등 4개 세션과 ▶Young Generation 포럼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Plenary Session에는 미나 테이처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차관과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미나 테이처 차관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각 학제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김종훈 사장은 'Innovating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강연한다.

또 개막일 저녁 열리는 만찬은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가 주재하고 김성호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가 'Curr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19일 오후부터 본격 시작되는 각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과학기술 정책부터 지역균형발전, 여성과학기술인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학술 발표 역시 이학·공학·농수산·보건 등의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정보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표 참조).

1974년 첫개최 이후, 횡수로 29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우선 내용과 형식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과총의 설명이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이번 대회는 과거 학술발표 중심의 대회 성격에서 벗어나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과학기술계에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폭넓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주요 일정

행사내용	일시	장소	비고
Plenary Session	• 7. 19(수) 10:30~12:30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 7.18(화)/등록, 환영연
General 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국가연구사업관리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과 지역균형발전 미래과학기술 과학기술과 여성 과학기술의 세계화 	• 7. 19(수) 14: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엑스 2층 아셈홀 (Rm 203B) 코엑스 2층 아셈홀 (Rm 203A) 코엑스 2층 아셈홀 (Rm 201) 코엑스 2층 아셈홀 (Rm 208A) 코엑스 2층 아셈홀 (Rm 208B)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 (Rm 101)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Rm 303A) 	
S&T Poster Session	• 7. 19(수) 14:00~18:30	•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Rm 104)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 7. 21(금) 09:00~18:00	•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	• 의장·부의장·간사장·감사·재외과학 회장단 등(개회식, 안건 심의, 각과협별 Country Report 보고)

2006

과총 창립 40th 기념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GCSE 2006

미래로! 세계로!
To the Future! To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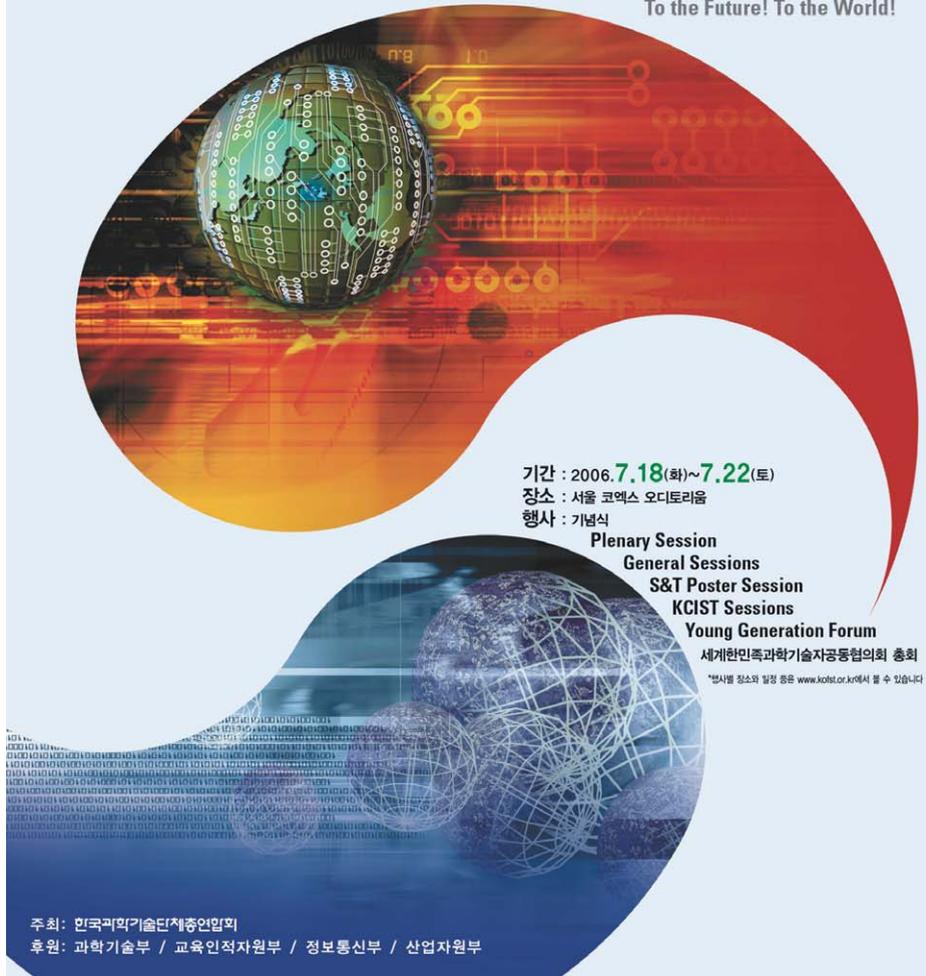
한국 과학기술계 과거와 현재, 미래 지향점 논의

대회 규모에 있어서도 외연을 크게 넓혔다. 과총은 해마다 별개 행사로 개최해온 학술대회 KCIST와 재외동포 2·3세대 젊은 과학도들이 참가하는 'Young Generation 포럼'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와 같은 기간에 개최해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한민족 과학기술자대회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로 40년을 맞는 과총과 한국 과학기술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지향점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채영복 회장은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초창기부터 과총은 학회 육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 해외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과학기술인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22일 오후까지 열리며 관심 있는 일반인은 대회 개막식과 Plenary Session, General Session 및 S&T Poster Session 행사에 현장 등록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대회 관련정보는 과총 홈페이지 www.kofst.or.kr에서 접공받을 수 있다.



기간 : 2006.7.18(화)~7.22(토)
장소 :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 : 기념식

Plenary Session
General Sessions
S&T Poster Session
KCIST Sessions
Young Generation Forum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본사별 장소와 일정 등은 www.kofst.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 :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 정보통신부 / 산업자원부

한편,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협의체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2006년 총회가 7월 21일(금) 서울 여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날 공동협의회에는 재외 과협 회장 13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운영 계획과 주요국 과학기술정책·제도·기술동향 조사사업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과총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 해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회원으로 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도 열려

글 | 편집실